



2018년 7월 22일(제885호) 연중 제16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일치의 주님”

본래 교구에서 군종교구로 파견 받아 군종사제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구 신부님들과 알고 지내게 된 것입니다. 본래 교구에만 있었다면 다른 교구 신부님들을 만날 기회가 흔하지 않은데, 군종교구에 와서 새롭게 만난 타 교구 동기 신부님들, 선·후배 신부님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자산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다른 종파의 종교인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도 종교 간의 일치라는 수업을 통해 타 종교의 지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타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군대에 와서 만난 목사님들, 법사님들과 더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몰랐었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도 많이 풀리게 되면서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치의 중요성입니다.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의 만남과 오랜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욱 커졌고, 이해가 커지면서 받아들이는 마음도 넓어졌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도 일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양 떼를 파멸시키고 흩어 버린 목자들을 벌하겠다고 하시면서 흩어진 당신의 양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로 모인 양들에게 그들을 돌보아 줄 새로운 목자를 세워주심으로써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정의와 공정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 역시 에페소인들에게 멀리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민족들 사이의 적개심이

허물어지고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이 폐지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민족들에게도 하느님의 평화가 도래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외딴곳으로 가서 쉬게 하셨지만, 많은 군중은 그런 제자들을 따라나섭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셨을까요? 복음에서는 모든 고을에서 군중들이 나와 제자들보다 먼저 외딴곳에 도착하여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르코 복음 사가는 모든 고을이라는 단어를 통해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종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맺어진 평화와 일치일 것입니다. 어느 한 민족이, 어느 한 국가만이 선택되어 하느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봅시다.



전희상(세례지오현) 신부
중령 103위 상인(육군 37사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예레 23,1-6
회 답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제 2 독 시 에페 2,13-18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 음 마르 6,30-34
영 성 제 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김광옥 인드레이



성인명: 김광옥 인드레이 (金廣玉 Andrew)

신분: 중인, 면장, 순교자

활동연도: 1741?-1801년

충청도 예산 여사울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난 김광옥(金廣玉) 안드레아는 오랫동안 그 지방의 면장(面長)으로 일하였다. 본디 그는 훌륭한 자질이 있었지만, 지나치게 사나운 성격 때문에 모두 무서워하였다.

김 안드레아는 50세쯤 되었을 때, 같은 여사울에 살던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이웃은 이때 그 사실을 알고 몹시 놀라워하였다. 이후 김 안드레아는 드러나게 교리의 본분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날마다 교우들과 한자리에 모여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드렸고, 사순 시기마다 금식재를 지키고 갖가지로 극기 행위를 실천하였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전의 성격을 극복하고 어린양과 같이 되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김 안드레아는 자신이 입교시킨 친척 김정득 베드로와 함께 성물과 서적만을 지닌 채, 공주 무성산으로 들어가 숨어 살면서 오로지 교리를 실천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포졸들은 그들의 종적을 쉽게 찾아냈다. 이후 김 안드레아는 예산으로, 김 베드로는 홍주로 압송되었다. 예산 현감은 김 안드레아가 체포되어 오자, 바로 공범자들을 대고 천주교 서적을 내놓으라고 명하였으나 그는 이를 거부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신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얼마 후 김 안드레아는 감사의 명에 따라 김정득 베드로와 함께 청주로 이송되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서로를 권면하면서 형벌과 옥중의 고통을 견디어 냈으며, 다시 한양으로 압송되어 8월 21일(음력 7월 13일)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기에는 ‘그들의 고향인 예산과 대흥으로 압송하여 참수하라.’는 명령이 덧붙여졌다. 예산까지 내려오는 동안, 김 안드레아와 김 베드로는 그 동안의 형벌 때문에 걸음을 땀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용기와 힘으로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손을 마주 잡으며 “내일 정오,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라고 작별 인사를 하였다.

이튿날 김 안드레아는 들것에 실려 예산 형장으로 가면서도 큰 소리로 목주 기도를 바쳤다. 또 지정된 장소에 이르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뒤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를 마친 다음, 목침을 가져다 스스로 그 위에 자신의 머리를 누었다. 그리고 두 번째 칼날에 목숨을 바쳤으니, 이때가 1801년 8월 25일(음력 7월 1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60세가량이었다.

복 음 묵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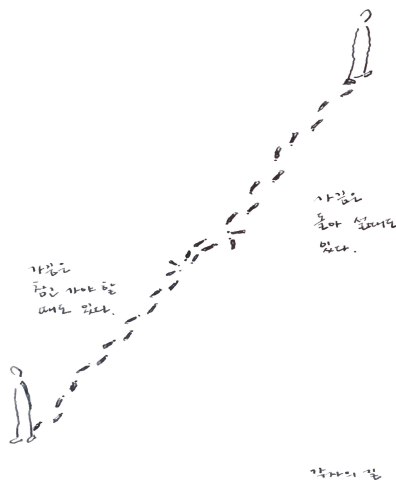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각자의 길

가끔은
돌아설 때도 있지

가끔은
참고 가야 할 때도 있지

결국
각자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살아 내야
하는 거니까.



상화이야기

성스테피노 성당



지난주에 이어 파사우의 성스테파노 성당을 계속 살펴보겠다. 위의 사진은 제단을 바라본 모습인데 중앙에는 제단화 대신 근대에 제작된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조각작품이 있고, 운벽에 뚫린 투명한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성당을 가득 채워 흰 스투코 벽과 함께 더욱더 이 공간이 가볍게 떠오르는 느낌을 준다. 왼쪽의 설교대는 가히 20m 정도에 달하는 거대한 작품으로 아래에 세부 모습이 있다.

신부님이 강론을 위해 올라가시게 될 이 설교대는 천사들과 성인들이 금빛으로 장식되어 마치 구름 위 천상에서 우리에게 강론 하시는 듯한 착각을 준다.

김은혜(벨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6주일 : 민포대 인영근 신부

◆ 교구장 통장

- 국장회의
 때·곳: 7월 24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